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의 조절효과

이성인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이호택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국 문 요 약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4% 이상, 종사자의 3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다.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경제구조상 주요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소상공인 사업가가 지니는 자신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회를 찾고 확보한 사업기회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은 개인의 성격요인에서 비롯한다. 또한 성격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성격을 기반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지니는 기업가적 성격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되고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쟁력과 사업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와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소상공인 기업가 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와 AMO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중 포용성과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특성은 모두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사이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정책자금의 조절효과는 소상공인 기업가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소상공인, 심리적 특성, Big 5 모델, 기업가정신,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서론

코로나 19는 모든 것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피터 다이아만디스(Peter Diamandis) 싱귤래리티 대학장은 '202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연설에서 '코로나 19, 당신 생각보다 빠르게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역설하였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변곡점에서 기업의 투자, 생산이 둔화되고, 공공시설이 마비되는 등 세계 경제의 악화로 시장경제는 위축되었다. 제조업의 세계 공급망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국가적 방역대응 체제의 단계적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과 업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큰 위기를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증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활성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은 공공부문, 대기업 및 상대적으로 원격근무 기반 등이 잘 구축된 IT 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재택근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유통인구의 감소는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등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급속한 환경변화로 환경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황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20)의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410만 개로 전년 대비 8만 개(2.1%)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220만 명으로 전년대비 57만 명(2.6%)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1~4인 업체는 79.8%인 327.5만 개이고 종사자 수는 587.7만 명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업체 수에서 소상공인 업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주저자,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love@dgist.ac.kr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hotaeky@kmu.ac.kr

· 투고일: 2022-01-10 · 수정일: 2022-02-12 · 게재확정일: 2022-02-20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Self-employment rate)은 24.6%로 OECD 가입국 기준 8위에 해당한다. <그림 1>과 같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OECD, 2021)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서는 늘 소외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준비한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5시간 만에 한도가 동났다.’(구민수, 2020)는 매일신문 기사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자금 지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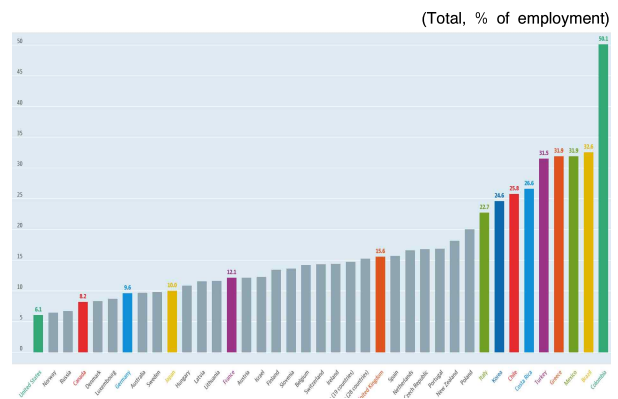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발생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대구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중에서도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상인의 수와 점포수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고 특히 대구지역 자체로 보면 이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 지역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중요도가 더 높다. 환경불확실성으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고 서비스업의 높은 비중은 경제 위기가 직면했을 때 더 취약한 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는 데, 소상공인이 직면한 이러한 환경불확실성이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적·구조적 취약성을 모두 노출시키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내 서비스업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2018년 50.8%(제조업 38.1%)에 달하며, 대구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대구 71.9%, 경북 40.0%)으로 경제위기 직면 시 타 지역 대비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20).

소상공인 기업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경우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치열한 경쟁과 환경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기업과 국가경제발전의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따라서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기업가정신 고취가 절실한 상황이다(김범성, 2012).

소상공인 기업가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이며 동시에 사업성과를 추구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당연히 기업가의 특성에 따라 경쟁력과 사업성과의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원종하·정대현, 2017).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상공인이 사업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현 상황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간이 기업가정신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을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성과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연구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단순히 소상공인 기업의 사업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김준기 외, 2008; 김순태 외, 2012; 정갑수·설병문, 2016; 김영문·강태균, 2018),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어떠한 매커니즘 속에서 소상공인 사업성과를 높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OECD(2021)

II. 이론적 배경

2.1.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이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정갑수·설병문, 2016).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체 비중에도 불구하고 1960년 66.3%였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963년에는 49.7%로 줄어드는 등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규모의 경제 중시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다(조혜신, 2014). 이렇게 중소기업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65년 1월 9일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주요 시책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의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1966년 12월 6일 법률 제1840호)하게 되었다(조병선, 2008).

「중소기업 기본법」 제정 당시 중소기업을 공업 기타 제조업·광업·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수 200인 이하 거나 자산총액 5

천만 원 이하,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하거나 자산총액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현행 법률이 정하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도 없었지만, 법 제정 취지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인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에 관한 시책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볼 때, 법률상 구분은 없으나 지원대상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지원이나 보호에 소외되었다.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하여 법령으로 ‘중소기업자’를 다시 정의하였다. 즉, 1997년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중소기업’과 구분된 법률적 용어인 ‘소기업’이 정의되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전까지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나 제정 이후 ‘소기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보면 소기업을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로, 상시 종업원 수를 더 확대함에 따라 소상공인은 법과 제도적 요건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2000년 12월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처음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되었다. 현재의 기준과 동일한 10명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15.01.28.)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후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2020.02.04.),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체계가 형식적으로는 갖춰졌다.

2.2. 심리적 특성

성격은 우리의 사회생활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사람과의 관계는 성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소상공인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기에(원종하·정대현, 2017), 기업역량보다는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기업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 가능하다(원종하·정대현, 2017; 임희진 외, 2020).

Kosslyn & Rosenberg(2011)는 성격을 다양한 시간과 상황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타인으로부터 개인을 구별하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경향성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정서, 인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이러한 차이는 기업가의 심리나 성격에 반영되어 기업경영 및 사업성과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므로 경영학에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auch & Frese(2007)는 심리적 특성으로 진취성, 혁신성, 위

협감수성, 자율욕구, 성취욕구, 스트레스 내성, 자기 효능감, 통제소재 등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김범성(2012)은 인지적 특성(IQ, EQ)과 비인지적 특성(동기부여 및 성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 특성을 심리적 특성(위험감수 성향, 성취욕구, 직관)과 역량 특성(인지능력, 혁신활동, 네트워크)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도 하였다(정대현·이은령, 2019).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특성 이론(Trait theory)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근본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개인차이가 난다는 관점이며, 특히 성격특성과 관련해서는 성격 5요인을 주로 다룬다(유태용·민병모, 2001; 김도영·유태용, 2002).

<표 1> 연구자별 성격요인

연구자	요인				
Fiske (1949)	Social adaptability 사회 적응력	Emotional control 정서적 통제	Social Conformity 사회적 동조성 (순응성)	Will to achieve 성취의지	Inquiring 지적탐구
Norman (1963)	Surgency 집행력 (Extraversion)	Emotional Stability 정서적 안정성	Agreeableness 포용성 (우호성)	Conscientiousness 신중성 (성실성)	Culture 문화
Borgatta (1964)	Assertiveness 주장성	Emotionality 정서성	Likeability 호감성 (Sociability)	Responsibility 책임성 (Task Interest)	Intelligence 지능
Digman & Inouye (1986) Digman (1990)	Extraversion 외향성	Neuroticism 신경증	Friendly compliance 우호적준수	Will to achieve 성취의지	Intellect 지성
Costa Jr & McCrae (1992)	Extraversion 외향성	Neuroticism 신경증 (Emotional Stability)	Agreeableness 포용성 (우호성)	Conscientiousness 신중성 (성실성)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Fiske(1949), Norman(1963), Borgatta(1964), Digman & Inouye(1986), Digman(1990), Costa Jr & McCrae(1992) 재구성

1960년대 후반까지도 유전에 의한 개인행동특성이 성격이라고 정의하였다. 성격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신뢰 가능한 수준에서 예측하는데 필수적 요인을 성격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성격 정의에 관한 연구와 성격 측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레이먼드 카텔(Cattell, 1905~1998)은 성격특성을 16가지로 구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16PF 자기 보고 척도’라고 하는 성격검사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Fiske가 1949년도 연구에서 Cattell의 16 요인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이후에 Norman(1963)과 Borgatta(1964) 등은 연구를 통해 성격 5요인 모델이 성격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인간의 공통적인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McCrae & Costa의 성격 5요인 모델이 이 분야를 연

구하는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Costa Jr & McCrae 1992; Digman, 1990; Fiske, 1949; Goldberg, 1993; McCrae & Costa Jr, 1987, 1997, 1999; 김도영·유태용, 2002). 연구자별 성격요인을 정리하면 상기 <표 1>과 같다.

국내 경영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성격5요인 모델을 외식기업 중업원(유희경 외, 2007), 호텔중업원(김석영·전희원, 2008), 제약판매사원(이호택, 2017)에 적용하여 성격적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2.3. 성격 5요인 모델

성격 5요인 모델은 ‘Big 5 모델’ 이라고도 하는데, Eysenck의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외향성(extraversion)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것만이 성격 특성의 차원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포용성(Agreeableness), 신중성(Conscientiousness) 그리고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확장하여 더 큰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성격유형을 구분하는 Big 5 모델 이외 MBTI 모델(Myers, 1987) 등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Big 5 모델은 다른 성격검사들과 일치성이 높고 유전적 성향 기반으로 정서, 대인관계 및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에 타당성을 인정받아 관련학계에서 대표적인 성격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Costa Jr & McCrae, 1992; John & Srivastava, 1999; McCrae & Costa Jr, 1999).

Big 5 모델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성격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으로, 외향성은 타인과 상호작용 정도로서 사교성, 적극성, 활동성 등의 특성으로 해석된다.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며 사회생활에서도 적극적이며 지배적으로(안승권·전혜진, 2019), 사회성에 가깝다(Watson et al., 1992). 또한 외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Srivastava et al., 2008).

두 번째 요인인 신경증(Neuroticism)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으로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정서적 경험에 대한 경향성으로(안승권·전혜진, 2019), 연구자에 따라 동일 차원의 반대적 특성으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경증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김도영·유태용, 2002; 유희경 외, 2007; 김석영·전희원, 2008).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을 반영하는 형용사 척도로 차분한-불안한, 이완된-긴장된, 편안한-초조한, 침착한-흥분하기 쉬운 등으로 Eysenck가 제시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포용성(Agreeableness, 또는 우호성)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서 관대함, 겸손함, 협조적, 세심한 배려 등의 특성으로 해석된다. 포용성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의 과시를 더 빈번하게 택하며(Graziano et al., 1996), 일상생활에서 포용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Asendorpf &

Wilpers, 1998).

네 번째 요인인 신중성(Conscientiousness, 또는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 규칙, 원칙을 지키려는 정도로서 책임감, 계획성, 목표지향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성실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실성’으로는 목표를 향한 의지적인 노력, 계획세우기, 인내 등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Digman & Inouye, 1986), Digman(1990)은 ‘성취하려는 의지’로 제안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적 개방성으로 지능과 관련된 성향이며, 변화, 다양성, 지적 자극 등의 특성을 지니는 정도로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 도전적, 호기심이 많은 특성을 지닌다(김도영·유태용, 2002; 유희경 외, 2007; 김석영·전희원, 2008).

2.4.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Wiklund, 1999),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전 인류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열정과 신념으로 도전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원동력을 조직수준에서 발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은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경영 행동과 자세, 또는 ‘이윤의 사회 환원’으로 이해하거나, ‘산업 조직을 창립하려는 의지와 실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위험감수, 불확실성에의 도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등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이춘우 외, 2014).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합의한 단일 정의는 없으며 활발하게 논의되는 만큼 연구자들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연구자 수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것은 한 개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의 어원은 ‘*entrepredre*’라는 프랑스어로, ‘시도하다. 착수하다, 시작하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칸띠용(Richard de Cantillon, 1680~1734)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감수를 강조하면서 ‘기업가(Entrepreneu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특정한 가격에 상품 또는 원료를 구매하고 불특정 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후 지대, 이자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위험부담을 지면서 자원 획득과 자원 활용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기업가(Entrepreneur)’를 정의하였다(Palmer, 1971).

기업가정신은 Schumpeter의 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영방식에 대한 성과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

다. 그는 ‘기업가(Entrepreneur)’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전략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로써 기업의 미래 방향을 설정 및 결정하며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구성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공격성, 자율성 등으로 구분(Lumpkin & Dess, 2001)하기도 하였고,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 세 가지로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Miller, 1983).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안정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추구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을 선도하여 위험을 헤쳐 나가는 태도 및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개인 성향을 말한다(Brockhaus, 1980; 이상식, 2016). 또한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실패할 경우 해당 활동에 상당한 비용 투입을 감수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가의 특성을 말한다(Miller & Friesen, 1982).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기술 수용과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능력 및 외부 기회를 활용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며(Covin & Slevin, 1991),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자세로 시장조사, 기술혁신, 공정혁신, 제품디자인, 광고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활동이다(Lumpkin & Dess, 1996). 진취성(Proactiveness)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내거나 시장 내의 지위를 바꾸려는 도전적인 자세(Lumpkin & Dess, 1996)이다. 또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며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찾는 통찰력을 말하며, 경쟁사보다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도전하는 활동이다(Dollinger, 1995).

기업가정신에 대한 하위요인들을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정의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의 배양으로 기업 활동은 시장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며(최종열·정해주, 2008),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근간으로 한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의 동력(Casson, 2005)이 되는 것에는 연구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가정신이 단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성장의 유일한 동력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으며 사회와의 상호작용, 환경의 가능성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1980년대까지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은 1990년대 환경경영과 2000년대 지속가능경영으로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은 경영방식의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시대정신을 반영한 기업가정신에 대해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성과를 연결하는 변수로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Zahra, 1991; Covin & Slevin, 1989; 소은영·박성환, 2015).

2.5. 사업성과

사업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성과는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다. 재무성과는 객관성에 근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기간에 대한 기업 운영의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기업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한다. 그러나 단일지표 사용은 오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다차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Venkatraman & Ramanujam(1986)은 재투자수익률(ROI),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수익률(ROS),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재무성과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성장률, 사업다각화 및 혁신 등의 사업성과와 만족, 근로의 질, 사회적 책임 등의 조직성과로 3가지 차원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재무성과 이외 다양한 성과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재무성과 이외에 경쟁적 성과, 서비스의 질, 유연성, 자원의 활용, 경영혁신 등 6가지 차원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중심의 성과를 사용해야 하므로(Fitzgerald et al., 1994), 고객 만족 성과 측면에서 기존고객 유지율, 단골고객 유지율, 신규고객 창출율, 불평고객 감소율 등의 성과척도를 사용한다(홍기운, 2003).

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소상공인의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다(윤상용, 2013).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의 사무를 관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1조 원 규모 창업 전용펀드와 2000억 원 규모 인수합병 펀드 조성 등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청사진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사무 관장’을 위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가장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용자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 이외 소상공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용 자금지원에 대한 실무 기관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성장추진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으로(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정부 및 지자체의 소상공인용 정책금융은 직접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공적 신용보증, 이차보전 등의 형태(윤상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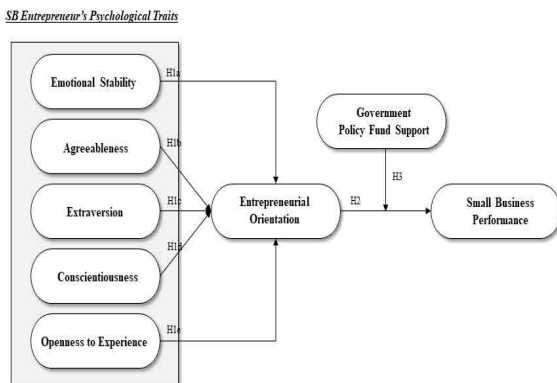
로 대부분 ‘용자사업’ 위주이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사업’ 형식의 정책자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IPO, 회사채, 벤처캐피털, 정부 정책자금(연구개발 자금, 용자 자금), 은행을 통한 일반 금융 등 다양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은행을 통한 일반 금융과 정부 정책자금으로 자금조달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정부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홍필기·서환주, 2011).

대구광역시에 소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조사한 이호택(2021)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의 한계점에 대해 첫째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수혜가능성이 낮으며, 둘째, 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 도산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 셋째, 지원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하였다.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성격 5요인에 기반 하여 정서적 안정성, 포용성, 외향성, 신중성, 개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가설 1). 기업가정신은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가설 2)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사이에서 정부 정책자금이 정(+)의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가설 3),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3.2.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성격 5요인과 기업가정신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개념이다. 성격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상상력이 풍부하며, 총명하며,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심이 강하게 나타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심리적 특성(Salgado, 2002)으로 기업가정신의 주요 하위 변수인 혁신성과 관련된다. 기업가의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 요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및 수행을 통해 고객의 니즈와 상호작용을 한다(이호택, 2017).

신중성(Conscientiousness)은 신중하며, 근면하며, 철저하며, 자기 확신이 강하며,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기업가정신의 하위 변수인 위험감수성과 관련된다. 신중성이 높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창업의도를 높이며(김범성, 2012), 이미 기업을 설립한 기업가는 매우 양심적이어서 규칙을 준수하며 높은 업적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형성되고 이러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Knight, 1921)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신뢰 기반의 위험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외향성(Extraversion) 능동적이며, 열정적이며, 사교적인 것과 밀접한 심리적 특성으로 진취성과 관련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Srivastava et al., 2008). 따라서 기업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형성된 경쟁우위 적극성이 지식경영활동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외부 네트워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고객 선호도와 기업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므로(황보윤·배근석, 2017)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특징을 지닌 외향적 사고의 유연성은 환경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탐색하게 한다(이호택, 2017).

신경증(Neuroticism)은 불안, 스트레스, 긴장 등 부정적 감정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완된, 침착한, 차분한 특징을 지닌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표현하는데, 정서적 안정성은 위험감수성과 상관관계가 있고(Nicholson et al., 2005), 조직관리, 경영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용성(Agreeableness, 또는 우호성)은 우호적인, 따뜻한, 친절함, 심성이 착한, 정중한 심리적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자주 관계 유지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진취성과 관련이 있다. 기업가의 우호성에 기반 한 고객 지향성은 기업의 장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호택, 2017).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hen et al.(2012)은 외향성

(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포용성(Agreeableness) 그리고 신중성(Conscientiousness)이 기업가정신에 크게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신경증(Neuroticism) 또한 기업가정신에 크게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정대용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신중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성격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의 기본적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적 특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osta Jr & McCrae(1992)의 성격 5요인에 근거한 기업가 고유의 성격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적 요인이 중요한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가의 성격 5요인(a. 정서적 안정성, b. 포용성, c. 외향성, d. 신중성, e. 개방성)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은 앞서 언급한 기업가에 대한 칸띠용(Cantillon)의 정의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운용이나 활용 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McDougall & Oviatt, 2003), 기업가정신에 따라 자원의 효율성과 활용 역량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이재훈·양현주, 2011). 또한 기업가의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 요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및 수행을 통해 고객의 니즈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이호택, 2017). 즉 기업가의 높은 개방성 특성이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이고(Atuahene-Gima & Ko, 2001), 기술 혁신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정철호·정덕화, 2014).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김기웅·김문선, 2017; 최종열, 2015)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기업가정신이 높은 기업일수록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구체화하는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높아지면, 그 결과 다양한 혁신성과 지표에서 기업가정신이 낮은 조직에 비해 우월한 사업성과를 내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Rauch et al., 2009; 김진영, 2019).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기업가정신(a. 위험감수성, b. 혁신성, c. 진취성)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정부 정책자금이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사이에 조절효과

기업이 위기에 따른 대응 방법은 재무관리 측면, 경영관리 측면, 인력관리 측면, 위기대응역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은애 외, 2020).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내리게 되는데(나상균, 2016), 경영환경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소상공인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에 소상공인 기업가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위기상황에 소상공인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이며 재무관리 측면에 기업의 존립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초기 창업자금의 양이 많을수록 창업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Cooper et al., 1991; Roberts, 1966). 기업입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은 기업이 학습하거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생존하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Covin & Slevin, 1986). 국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창업지원 사업(창업교육지원, 창업재정지원, 창업멘토링)이 창업가정신을 높이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이강현·이호택, 2019). 따라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사업성과로 이어지는데 있어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시장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정부 정책자금은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02월 사이에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이다. 총 202명의 설문을 회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75.2% 여성은 20.3%, 점포 구분은 임대 75.2%, 자기 소유 20.3%로 조사되었다. 사업 업종은 제조업 23.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비율이 높고 도매 및 소매업 17.8%, 숙박 및 음식점업 12.4%, 건설업 1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4% 순으로 나타났다. 업지유형은 지역상권 내 상점 30.7%, 비 상권 일반 상점 25.7%

로 등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참여 대상자의 자세한 통계학적 자료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참여 대상자 통계

구분		N	%	구분		N	%
업종	제조업	48	23.8	사업장 소재지	남구	11	5.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급조절 공급업	4	2.0		달서구	57	28.2
	수도, 하수 및 폐기	1	0.5		달성군	9	4.5
	건설업	23	11.4		동구	13	6.4
	도매 및 소매업	36	17.8		북구	45	22.3
	운수 및 창고업	3	1.5		서구	21	10.4
	숙박 및 음식점업	25	12.4		수성구	21	10.4
	정보통신업	9	4.5		중구	14	6.9
	금융 및 보험업	5	2.5		대구 외	10	5.0
	부동산업	4	2.0		점포 구분	임대	1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6.4	자가		41	20.3
	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	2	1.0	무응답		9	4.5
	교육서비스	7	3.5	전통시장		5	2.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6	3.0	지역상권 내 상점		62	30.7
	업종	예술, 스포츠	7	3.5	입지 유형	아파트 상가	8
협회 및 단체		9	4.5	집합상가		5	2.5
교육서비스		7	3.5	비상권 일반상점		52	25.7
협회 및 단체		9	4.5	기타		60	29.7
대표 성별	남자	152	75.2	무응답	8	4.5	
	여자	41	20.3				
	무응답	9	4.5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모형의 각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모두 사용되었던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특성, 특히 성격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보면 성격을 성격 5요인으로 구성하는데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5요인(Big 5 모델)을 적용하여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포용성(Agreeableness), 외향성(Extraversion), 신중성(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구분하여 하위 변수로 측정하였다(Costa Jr & McCrae, 1992; 유태용·민병모, 2001).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요인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 포용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교체 또는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 신중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원칙, 규범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지적자극, 다양성, 변화를 좋아하는 정도’(유태용·민병모, 2001)로 정의,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사업 관련 위험감수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혁신과 변화를 선호하며 다른 기업과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기업가 또는 경영진의 성향’(Covin & Slevin, 1990)으로 정의하고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등 하위변수로 측정하였다(이강현·이호택, 2019; 이호택 외, 2018).

첫째, 위험감수성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방법으로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어도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로써 위험 민감도가 낮아 위험을 즐기는 정도’로 정의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을 강조,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증시, 의사소통을 통해 혁신적 사업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 직원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정도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ovin & Slevin, 1986).

둘째, 혁신성은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프로세스에서 시장조사, 제품 디자인, 광고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거나, 관리 관행 기법, 공정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망사업에 진입하려는 노력, 저수익-저위험 보다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추구하는 성향,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보다 신속함을 더 중시하는 경향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ovin & Slevin, 1990).

셋째, 진취성은 ‘시장 내 경쟁기업에 대한 적극적 경쟁 의지와 높은 사업성과를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도전적 자세’로 정의하고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에서 경쟁업체보다 앞지르려는 노력, 주도적으로 시장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려는 노력 등의 4개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ovin & Slevin, 1986).

소상공인 사업성과는 ‘소상공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한 결과로 얻어지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산출물’로 정의하고(양덕모·유왕진, 2014) 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고객 성과로 한정하여 ‘고객만족도, 고객유지율, 신규고객 비율 등의 비계량적 지표’로 정의하고 고객만족도, 고객유지율, 신규고객 비율 등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허동욱·김준호, 2013).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혜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4.3.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앞서 각 변수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test와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확인결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의 모형의 적합도(Model fit) $\chi^2=712.873$, $df=471$, $RMR=0.029$, $RMSEA=0.051$, $GFI=0.833$, $NFI=0.872$, $IFI=0.953$, $TLI=0.946$, $CFI=0.952$ 로 각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air et al., 2006).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평균 분산 추출 값(AVE)과 개념 신뢰도(CR)는 모두 허용 수준인 0.5와 0.7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Bagozzi & Yi, 1988).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item	construct	st.estimate	S.E.	C.R.	AVE	CR	Cronbach's α
위험감수성	기업가 정신	0.841	-	-	0.787	0.917	0.944
혁신성		0.969	0.134	10.14			
진취성		0.846	0.12	9.173			
포용성1	포용성	0.793	-	-	0.602	0.819	0.820
포용성2		0.736	0.084	10.495			
포용성3		0.797	0.085	11.419			
외향성1	외향성	0.806	-	-	0.691	0.899	0.898
외향성2		0.882	0.08	14.542			
외향성3		0.818	0.078	13.113			
외향성4		0.817	0.079	13.096			
신중성1	신중성	0.822	-	-	0.717	0.910	0.910
신중성2		0.861	0.075	14.664			
신중성3		0.844	0.078	14.242			
신중성4		0.86	0.075	14.627			
정서적안정성1	정서적 안정성	0.904	0.096	12.712	0.694	0.871	0.867
정서적안정성2		0.838	0.093	11.964			
정서적안정성3		0.75	-	-			
개방성1	개방성	0.873	-	-	0.696	0.901	0.900
개방성2		0.861	0.063	15.71			
개방성3		0.822	0.061	14.598			
개방성4		0.778	0.062	13.343			
위험감수성4	위험 감수성	0.771	-	-	0.679	0.894	0.895
위험감수성3		0.79	0.093	11.774			
위험감수성2		0.87	0.091	13.185			
위험감수성1		0.861	0.089	13.033			
혁신성4	혁신성	0.847	-	-	0.738	0.918	0.918
혁신성3		0.876	0.061	16.116			
혁신성2		0.854	0.064	15.423			
혁신성1		0.859	0.067	15.571			
진취성1	진취성	0.813	-	-	0.690	0.899	0.899
진취성2		0.832	0.072	13.527			
진취성3		0.81	0.074	13.03			
진취성4		0.866	0.072	14.27			
신규고객	사업성과	0.846	-	-	0.750	0.900	0.900
고객유지		0.881	0.072	15.054			
고객만족		0.871	0.072	14.877			

Model fit: $\chi^2=712.873$, $df=471$, $RMR=0.029$, $RMSEA=0.051$, $GFI=0.833$, $NFI=0.872$, $IFI=0.953$, $TLI=0.946$, $CFI=0.952$

4.4.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략적인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들이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요인 각각의 AVE값과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포용성(1)	3.663	.564	1						
외향성(2)	3.586	.646	.656**	1					
신중성(3)	3.690	.636	.644**	.749**	1				
정서적 안정성(4)	3.589	.581	.577**	.566**	.589**	1			
개방성(5)	3.262	.609	.306**	.324**	.274**	.463**	1		
기업가정신(6)	3.421	.589	.380**	.393**	.450**	.537**	.560**	1	
고객성과(7)	3.254	.640	.300**	.244**	.308**	.219**	.150*	.317**	1

** $p<0.01$; * $p<0.05$

4.5.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이용하였으며, AMOS 6.0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모형 적합도는 $\chi^2=725.187$, $df=476$, $RMR=0.032$, $RMSEA=0.051$, $GFI=0.829$, $NFI=0.870$, $IFI=0.951$, $TLI=0.945$, $CFI=0.951$ 로 적합도 지수들이 권고치를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06).

가설 1은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정서적 안정성, 포용성, 외향성, 신중성, 개방성)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안정성, 신중성, 개방성만이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백유미(2018)는 성격 5요인 모두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김범성(2012)은 포용성은 창업의도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대용 외(2017)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으로 포용성과 신중성은 유의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포용성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김범성(2012), 정대용 외(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포용성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타인에 관대한 성향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업종에 따라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유지보다는 단순 거래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향성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기업가정신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Jung(1923)은 성격유형으로 외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외향성을 외부지향형과 내부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지향형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고, 내부지향형은 자기주관에 집중하고 외부환경 등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가설 2는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 지지되었다. 소상공인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경영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Covin & Slevin, 1989; Lee et al., 2001; Lumpkin & Dess, 1996; Wiklund, 1999)와 일치한다. 기업가정신이 높은 소상공인 기업가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행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가설 3은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조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로 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Delta \chi^2$ 값이 10.395이므로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보다 사업성과가 높게 나타나 수혜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 비교 시, 수혜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정부 정책자금)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표 5> 가설검증결과

가설	경로	st. estimate	S.E.	t-value	p-value	Result
가설1a	정서적안정성 → 기업가정신	0.249	0.102	2.323	0.02	Supported
가설1b	포용성 → 기업가정신	-0.034	0.114	-0.261	0.794	Not Supported
가설1c	외향성 → 기업가정신	-0.186	0.111	-1.342	0.18	Not Supported
가설1d	신중성(성실성) → 기업가정신	0.38	0.114	2.769	0.006	Supported
가설1e	개방성 → 기업가정신	0.447	0.061	5.489	***	Supported
가설2	기업가정신 → 사업성과	0.374	0.103	4.664	***	Supported

Model fit: $\chi^2=725.187$, $df=476$, $RMR=0.032$, $RMSEA=0.051$, $GFI=0.829$, $NFI=0.870$, $IFI=0.951$, $TLI=0.945$, $CFI=0.951$

<표 6> 정부 정책자금의 조절효과

가설	경로	st. estimate		$\chi^2(df)$		$\Delta\chi^2(1)$	Result
		지원사업 수혜기업	비수혜 기업	unconstraint model	constraint model		
가설3	기업가정신 → 사업성과	0.628**	0.485**	1470.635 (952)	1481.030 (953)	10.395	Supported

VI. 결론 및 시사점

6.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구지역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5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한 사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사이에 정부 정책자금의 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심리적 위축, 매출 급감 등으로 벼랑 끝 위기상황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성격요인에 대해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정서적 안정성, 신중성, 개방성 등은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이나, 포용성이나 외향성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상공인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성, 신중성, 개방성의 제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포용성과 외향성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대용 외(2017)의 연구에서는 외향성 성격이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도 다른 결과이다. 포용성과 외향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소상공인 기업가는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 파트너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이 발현되기보다는 거래 파트너나 고객과의 관계를 단기지향성(Short-term Orientation) 관점에서 단기 거래로 끝나는 관계로 인식 하여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지 않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은 기업가의 지각에 영향을 주며, 기업가의 지각은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적 행위를 통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inkelstein & Hambrick, 1990)를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은 서비스분야, 노동집약적 제조 분야로 구성되어 대기업보다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해야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주도권은 여전히 열악한데 거대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수립에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는 학문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서적 안정성, 신중성, 개방성이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을 매개로한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중하며, 개방적인 성격의 소상공인 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정책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 및 시행으로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성격적으로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며, 소상공인 기업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의 주도적 노력(Johnson, 2003; Parker et al., 2006)에 더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외부교육이 뒷받침된다면 기업가정신 함양이 가능하다(Yang, 2017; 이준형·이우진, 2019).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심리적 특성에 기반 한 기업가정신 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을 가진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기반 한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력이 약화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쟁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을 비교해보면, 수혜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금융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전통시장 현대화 등의 지원과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정책에만 천착할 경우 소상공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대한 조정 논리도 빈약하게 된다. 소상공인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정부정책 및 지원 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1년 03월부터 시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

경제의 중추이자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삶을 보호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소상공인 기업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극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6.2. 연구의 한계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지니는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역시 존재하는데,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5요인 모델(Big 5 모델)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 중 본 연구에 적용하지 않은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심리적 특성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각 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에는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세부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연구 성과물이 너무 부족하여 각각의 세부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업가정신을 단일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부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업성과는 기업의 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지표만으로 사업성과를 특정 하는 것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성과의 측정은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의 양자에 대한 적절한 조합에 의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이상석, 2016). 따라서 사업성과는 단일 지표보다는 고객성과와 같은 비 재무성과와 재무성과를 포함한 복합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owell, 199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성과를 고객성과로 한정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성과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개하는 소상공인 기업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에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적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구지역 이외의 지역까지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구민수(2020.12.10.). *소상공인 긴급대출 5시간 만에 동났다*. 매일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imacil.com/page/view/2020121008143739206>.
- 김기웅·김문선(2017). 중소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사내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벤처창업연구*, 12(5), 13-28.
- 김도영·유태용(2002). 성격5요인과 조직에서의 맥락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2), 1-24.
- 김범성(2012).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119-152.
- 김석영·전희원(2008). 호텔종사원의 개인성격이 직무몰입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성격5요인을 바탕으로. *관광연구*, 23(2), 239-257.
- 김순태·민경명·오상영(2012).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4), 1594-1602.
- 김영문·강태균(2018).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체도가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창업학회지*, 13(3), 1-27.
- 김준기·이영범·이석원·장경호·이민호(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1-32.
- 김진영(2019). 기업가지향성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2), 83-93.
- 나상균(2016).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 창업성공요인 및 창업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5(4), 251-268.
- 백유미(2018). 대학생의 성격 5요인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몰입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3), 137-144.
- 소은영·박성환(2015).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0(1), 245-264.
- 안승관·전혜진(2019). 개인의 특성이 창업만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격 5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35-141.
- 양덕모·유왕진(2014). 구매업체-공급업체 SCM 유연성이 협력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9(4), 152-177.
- 원종하·정대현(2017).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1), 111-121.
- 유태용·민병모(2001). 다양한 장면에서 수행을 예측하기 위한 5 요인 성격모델의 사용가능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지*, 14(2), 115-134.
- 유희경·김미연·정희경(2007). 외식기업 종업원의 Big 5 성격요인, 조직지원인식과 고객성과의 관계분석. *한국호텔경영학연구*, 16(5), 201-219.
- 윤상용(2013).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5(4), 269-291.
- 이강현·이호택(2019).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가정신과 창업기업역량 그리고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9(1), 43-55.
- 이상석(2016). 히든챔피언 기업의 기업가정신, SWOT요인의 경쟁(대응)능력,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연구. *벤처창업연구*, 11(2), 21-33.
- 이재훈·양현주(2011). 국제기업가정신, 핵심역량 그리고 국제화 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6), 3247-3271.
- 이준형·이우진(2019). 청소년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 의지와 관계행동과의 영향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153-159.
- 이춘우·한유진·김도현·서유미·이경원·이희우·이영달(2014). *기업가정신의 이해*. 서울: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이호택·한창남·차영봉(2018).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이 기업보유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기술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8(3), 135-146.
- 이호택(2017). 제약영업사원의 성격특성이 고객지향성과 판매지향성 그리고 장단기성과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유통연구*, 22(4), 125-148.
- 이호택(2021).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의 맞춤형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1(3), 299-309.
- 임희진·김재홍·박지윤(2020).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7(3), 63-102.
- 정갑수·설병문(2016). 소상공인 지원체도가 경남지역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221-232.
- 정대용·임진혁·채연희(2017).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취업가능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구조적 관계와 성별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2(3), 249-269.
- 정대현·이은령(2019).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특성이 BSC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경영연구*, 34(3), 201-234.
- 정은애·정유태·박재성(2020). *생존과 도약의 추구: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대응 방향 중소기업포커스 20-09호*. 서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철호·정덕화(2014).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지향성이 기업가정신에 따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468-479.
- 조병선(2008). 정책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법제(中小企業法制)의 현황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 30(4), 231-251.
- 조혜신(2014). 한국중소기업법제의 성과와 한계-지원, 육성정책과 경쟁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2(2), 271-293.
- 최종열·정해주(2008). 경영학 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 최종열(2015).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219-231.
- 통계청(2020).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Retrieved(2021.12.30.) from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7205.
- 한국은행(2020). *코로나 19 확산이 대구경북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Retrieved(2021.12.30.) from <http://www.bok.or.kr/portal/bbs/P0000720/view.do?ntId=10057119&menuNo=200570>.
- 허동욱·김준호(2013). 성장단계별 지원서비스가 소상공인의 균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9(2), 387-404.
- 홍기운(2003). *외식기업의 시장지향적 경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홍필기·서환주(2011).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가?. *재정정책논집*, 13(2), 85-111.
- 황보윤·배근석(2017). 사내기업가정신, 인적자원혁신성이 기업혁신활동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2(4), 1-14.
- An, S. G., & Jeon, H. J.(2019).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Focused on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135-141.

- Asendorpf, J. B., & Wilpers, S.(1998). Personality effects o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531-1544.
- Atuahene-Gima, K., & Ko, A.(2001).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alignment on product innovation. *Organization science*, 12(1), 54-74.
- Back, Y. M.(2018). The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on Entrepreneurship of the College Stud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Flow and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37-144.
- Bagozzi, R. P., & Yi, Y. J.(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k of Korea(2020). *Results of a survey on the impact of the spread of COVID-19 on the economy of the Daegu-Gyeongbuk region*. Retrieved(2021.12.30.) from <http://www.bok.or.kr/portal/bbs/P0000720/view.do?nttId=10057119&menuNo=200570>.
- Borgatta. E. F.(1964).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havioral Science*, 12, 8-17.
- Brockhaus, R. H.(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3), 509-520.
- Casson, M.(2005). Entrepreneurship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8(2), 327-348.
- Chen, S. C., Jing, L. L., & Sung. M.(2012).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Using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attitude as mediating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3(3), 76-82.
- Cho, B. S.(2008).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SME Legal System and its Way of Improving in Korea.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0(4), 231-251.
- Cho, H. S.(2014).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n Legislation on SMEs-with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Promotion Policy and Competition Policy.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22(2), 271-293.
- Choi, J. Y.(2015). Relationship Analysis among Entrepreneurship, Innovation Capability, External Cooper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for Venture Compan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219-231.
- Choi, J. Y., & Jeong, H. J.(2008). A Study On Effect Of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5(3), 213-230.
- Chung, D. Y., Im, J. H., & Chae, Y. H.(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Traits,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ship of the College Student,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3), 249-269.
- Cooper, A., Gascon, J., & Woo, C.(1991). A resource-based prediction of new venture survival and growth. *Proceedings of Academy of Management*, 113-119.
- Costa Jr, P. T., & McCrae, R. R.(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Covin, J. G., & Slevin, D. P.(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3), 628-639.
-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Covin, J. G., & Slevin, D. 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 Digman, J. M.(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igman, J. M., & Inouye, J.(1986).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five robust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1), 116-123.
- Dollinger, M. J.(1995). *Entrepreneurship: strategic and resources*. Boston: Irwin, Boston.
- Finkelstein, S., & Hambrick, D. C.(1990). Top-management-team tenure and organizational outcomes: The moderating role of managerial discre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84-503.
- Fiske, D. W.(1949). Consistency of the factorial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from different sourc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4(3), 329-344.
- Fitzgerald, L., Johnston, R., Brignall, S., Silvestro, R., & Voss, C.(1994). *Performance Measurement in Service Business*, London: Black Bear Press Ltd.
-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ldberg, L. R.(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s*, 48(1), 26-34.
- Graziano, W. G., Jensen-Campbell L. A., & Hair, E. C.(1996). Perceiving interpersonal conflict and reacting to it: the case for agreeabl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820-835.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University Press.
- Hong, K. W.(2003). *Study on the impact of Market Orientation Competitive strategy upon management performance in foodservice firms*.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orea.
- Hong, P. K., & Seo, H. J.(2011). Does Government Support Stimulate Business R&D?.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13(2), 85-111.
- Huh, D. W., & Kim, J. H.(2013). Grow Step by Step Support Services and Its Impact on the Balance Score Card.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49(2), 387-404.
- Hwangbo, Y., & Bae, K. S.(2017). Impact of Corporate

- Entrepreneurship, Human Resource Innovation on the Firms' Innovation Activities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4), 1-14.
- John, O. P., & Srivastava, S.(1999). Th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 102-108.
- Johnson, J. W.(2003).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Job Performance, Personality and Work. *Reconsidering the Role of Personality in Organizations*, 4, 83-120.
- Jung, C. G.(1923). *Psychological type*. New York, NY: Harcourt Brace.
- Jung, C. H., & Jung, D. H.(2014). The Effects of Strategic Orientations on Company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Small Medium Sized and Ventures Manufacturing Firm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7), 468-479.
- Jung, D. H., & Lee, E. R.(2019). The Influence of Small Merchants' Psychological Traits on BSC Performanc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4(3), 201-234.
- Jung, E. A., Jung, Y. T., & Park, J. S.(2020). The Search for Survival and leap-seeking: The Direction of SME after COVID-19(KOSBI SME Focus 20-09). Seou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Jung, G. S., & Seol, B. M.(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Managerial Performance with Small Business Support Systems in Gyeongn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221-232.
- Kim, B. S.(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Focus on the Process Model.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1), 119-152.
- Kim, D. Y., & Yoo, T. Y.(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ontextual performance in work organiz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5(2), 1-24.
- Kim, J. K., Lee, Y. B., Lee, S. W., Jang, K. H., & Lee, M. H.(2008).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Government Small Business Loan Program: Comparing the Types of Loan Program Management.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6(1), 1-32.
- Kim, J. Y.(2019). Impa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knowledge pos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83-93.
- Kim, K. W., & Kim, M. S.(2017). An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ce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from the Viewpoint of SMEs Growt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3-28.
- Kim, S. Y., & Jun, H. W.(2008). Effects of hotel employee's personality on job involvement and Career involvement: Focused on Big 5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3(2), 239-257.
- Kim, S. T., Min, K. M., & Oh, S. Y.(2012). A Study on the Governmental Policy' Loan of Small Bus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4), 1594-1602.
- Kim, Y. M., & Kang, T. G.(201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Focusing on the Analyses and Results in Jeonbuk Region.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3(3), 1-27.
- Knight, F. H.(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Harper and Row.
- Koo, M. S.(2020.12.10). *The limit on emergency loans for small businesses was exhausted in 5 hours*. The Maeil Shinmun, Retrieved from <http://news.imaeil.com/page/view/2020121008143739206>.
- Kosslyn, S. M., & Rosenberg, R. S.(2011). *Introducing Psychology: Brain, Person, Group*. London: Pearson Custom Publishing.
- Lee, J. H., & Lee, W. J.(2019).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Will.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153-159.
- Lee, C. W., Han, Y. J., Kim, D. H., Seo, Y. M., Lee, K. W., Lee, H. W., & Lee, Y. D.(2014).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Seoul: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Lee, C., Lee, K., & Pennings, J. M.(2001).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f Technology Bases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615-640.
- Lee, G. H., & Yi, H. T.(2019).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grams on Entrepreneurship, Corporate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9(1), 43-55.
- Lee, S. S.(2016). A Study on Entrepreneurship, Competitiveness of SWOT, and Performance in Hidden Champion Fir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21-33.
- Lim, H. J., Kim, J. H., & Park, J. Y.(2020).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Up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7(3), 63-102.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umpkin, G. T., & Dess, G. G.(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5), 429-451.
- McCrae, R. R., & Costa Jr, P. T.(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2(1), 81-90.
- McCrae, R. R., & Costa Jr, P. T.(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5), 509-516.
- McCrae, R. R., & Costa Jr, P. T.(1999). *A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L. A. Pervin & O.P. John(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McDougall, P. P., & Oviatt, B. M.(2003). Some 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27), 1-27.
- Miller, D., & Friesen, P. H.(1982). Innovation in conservative and entrepreneurial firms: two models of strategic momentu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1), 1-25.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yers, I. B.(1987). *Introduction to Type(4th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Na, S. G.(2016).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s of Small Business Start-up Founders.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5(4), 251-268.
- Nicholson, N., Soane, E., Fenton-O’Creevy, M., & Willman, P.(2005). Personality and Domain-specific Risk Taking. *Journal of Risk Research*, 8(2), 157-176.
- Norman, W. T.(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OECD(2021). *self-employment rate*. Retrieved(2021.06.11.) from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self-employment-rate/indicator/english_fb58715e-en.
- Palmer, M.(1971).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esting to entrepreneurial potential.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3(3), 32-38.
- Parker, S. K., Williams, H. M., & Turner, N.(2006). Modeling the Antecedents of Proactive Behavior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3), 636-652.
- Powell, T. C.(1992). Research Notes and Communications Strategic Planning as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7), 551-558.
- Rauch, A., & Frese, M.(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 Rauch, A., Wiklund, J., Lumpkin, G. T., & Frese, M.(2009).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 assessment of past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761-787.
- Rhee, J. H., & Yang, H. J.(2011). Relationships Among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Core Competence, and Internat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4(6), 3247-3271.
- Roberts, E. B.(1966). How to succeed in a new technology enterprise. *Technology Review*, 73, 25-35.
- Salgado, J. F.(2002).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counterproductive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0(1-2), 117-125.
- So, E. Y., & Park, S. W.(2015).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f Small Business Owners on their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1), 245-264.
- Srivastava, S., Angelo, K. M., & Vallereux, S. R.(2008). Extraversion and positive affect: A day reconstruction study of person-environment transac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6), 1613-1618.
- Statistics Korea(2020). *Preliminary Results of 2019 Census on Establishments*. Retrieved(2021.12.30.) from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7205.
- Venkatraman, N., & Ramanujam, V.(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01-814.
- Watson, D., Clark, L. A., McIntyre, C. W., & Hamaker, S.(1992).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1011-1025.
- Weong, J. H., & Jung, D. H.(2017). The Effect on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111-121.
- Wiklund, J.(1999). The Sustainability of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4(1), 37-48.
- Yang, D. M., & Yoo, W. J.(2014). Effects of the SCM Flexibility between the Supplier-Buyer on Cooperative Activit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4), 152-177.
- Yang, J. H.(2017). The Effect of Role Model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Juvenil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1-11.
- Yi, H. T.(2017). Differential Effect of Salespersons Personality on Selling Orientation-Customer Orientation and Sales Performance: Focused on Pharmaceutical Distribution Channel.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22(4), 125-148.
- Yi, H. T.(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Policy for Small Businesses in City of Daegu.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21(3), 299-309.
- Yi, H. T., Han, C. N., & Cha, Y. B.(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Industrial Cluster Systematicity on Corporate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Focused on Technology Venture Companies in City of Daegu.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8(3), 135-146.
- Yoo, T. Y., & Min, B. M.(2001). Predictability of Big-Five personality model to performance in a variety of settings and its limitation: A meta-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4(2), 115-134.

- Yu, H. K., Kim, M. Y., & Chung, H. K.(2007). Employees' Big 5 Personality,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Customer Performance in Food Service Corporations.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16(5), 201-219.
- Yun, S. Y.(2013). A Study on Efficiency Enhancement of Public Financial Supporting Programs for Micro Busines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4), 269-291.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6.

The Effect of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Lee, Sung In*

Yi, Ho-Taek**

Abstract

This paper presented a research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traits of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 total of 202 entrepreneurs in Daegu were surveyed and the data obtained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and AMO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all of the psychological traits except 'Agreeableness' and 'Extroversion' among the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and government policy funding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and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s examin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is examined to find out what psychological traits of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affect the expression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addition, sinc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ffects performance and government policy funds control, it suggests that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for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is needed.

KeyWords: Small Business Entrepreneur, psychological traits, Big 5 Mode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government policy funds.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Business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love@dgist.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hotaekyi@kmu.ac.kr